

# 牛峯李氏大宗報

제 14 15 호

發行人兼編輯人：李丙疇  
 主 幹：李丙泰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33-1  
 印 刷 處：신오성기확인쇄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40-1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 대중회 사무실 개소식 거행

### 宗事 논의할 장소 마련을 시조에게 告由

서울 중구 무교동 무교빌딩 5층에서

#### 회원사업인 대중회 사무실 개소식 거행

지난 9월 25일 오후 6시 무교빌딩 5층(중구 무교동 33-18)에 새로 단장된 대중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石田(병주)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단과 중무위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이날 석전 회장은 告由文(고유문)을 통해 "戊寅(무인 1998년) 음 7월 辛丑(신축)朔初(삭초) 6일 丙午(병오)에 25대 대중회장 문학박사 병주는 감히 존 영전에 고한다."고 전제하고, 우뚝을 본으로 한 지 786년이 되어 증사를 논의할 장소를 마련되었으니 종인들의 만남의 장소로는 물론, 종사를 다루는 사무소에 언제나 활기와 화기가 가득 차게 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고했다. 끝으로 석전 회장은 시조공의 묘역은 오늘날 남북으로 분단되어 휴전선 이북에 있어 유택을 찾지 못하고, 새로 마련한 우뚝이씨 대중회 사무소내에 설치한 酒果脯(주과포)와 醃酌(청작)으로 삼가 고후오니 강림하시어 고후 가호하여 주시웁기를 간구하오며,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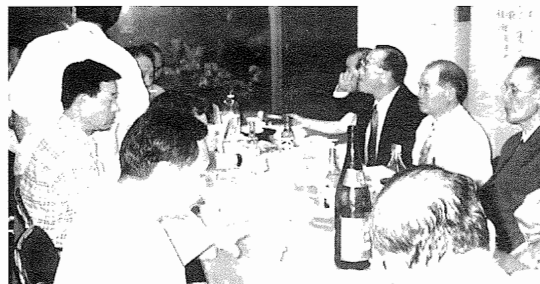
족한 정성이오나 편히 歆饗(희향)하시라고 했다.

무교빌딩 5층 사무실은 30여 평으로 병철 부회장, 병순 감사 및 무학 도유사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무실 내부시설은 먼저 사용했던 건물주가 이미 고급 인테리어로 치장하였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집기류

는 철구 부회장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동양강철 고급제품으로 회의용 책상을 비롯하여 사무용 책상과 의자 및 옷장 등 110만원 상당의 사무용 비품을 기증하였으며, 갑녕 부회장은 회장실 용 용접의자 1조를, 유신(龍茂)씨는 스탠드 에어컨(180만원 상당)을 기증하였다.(무학 도유사 제공)



10월 21일 대중회 사무실 개소식에서 병주 회장이 선조에게 告由 배례를 하고 있다.



대중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 임원들(10. 21)

### 발전기금 보내준 일가들 ('98) 10월 현재 74,543,063원

만녕	10,500,000원	청녕	500,000원
병무	10,000,000원	충범	500,000원
무탁	1,000,000원	병주(회장)	500,000원
병호	1,000,000원	병룡	500,000원
기무	1,000,000원	과주연천 화수회	500,000원
무상(인천)	1,000,000원	안강두류 화수회	500,000원
건녕	1,000,000원	무학	500,000원
윤무(아세아)	1,000,000원	영범	300,000원
병천	1,000,000원	병국	300,000원
창무(아세아)	1,000,000원	덕용	350,000원
재녕	1,000,000원	병두	300,000원
병철	1,000,000원	인무	300,000원
무탁	1,000,000원	영무	300,000원
순녕	1,000,000원	옥천 영모당	300,000원
만용	1,000,000원	대전 화수회	300,000원
범준(대전)	1,000,000원	철구(부회장)	300,000원
병덕(황성)	1,000,000원	수녕(광명)	300,000원
승녕	1,000,000원	운구	270,000원
태녕	1,000,000원	병원	100,000원
범서	1,000,000원	도녕	120,000원
근녕(안양)	1,000,000원	진형(대전)	50,000원
준구	1,000,000원	화무(대전)	50,000원
대전 의열공	채경중증 1,000,000원	삼녕(대전)	50,000원

### '97년도 대중회 총회 개최

지난 '97년 10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람증권 빌딩 19층에서 '97년도 대중회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예년과 같이 많은 일가들이 모여 시조 문경공 묘소 망배를 시작으로 '우뚝이'여, 영원하라'는 문중을 상징하는 자작시 낭송(무원)과 고려 백운거사 이규보가 지은 시조 문경공 칭송율시 낭송(한시 우뚝·국역시 선녕)이 있었다. 특히, 이날 포항공대 교수

동녕일가의 "과학도를 지향하는 우뚝인"이라는 강연으로 문중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이어 인기가수 무송씨 부부(부인 노사연)가 인사를 했으며, 무형문화재 제19호 기능 이수자인 두녕씨의 국악한마당 공연으로 흥을 돋우었다. 오후 제2부 순서에서는 승무(의열공 문중 세심제공 문중회장)씨가 하였다.

이어 유공재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경품추첨으로 폐회하였다.

### 丙疇회장 '97 서울시 문화상 수상 인문과학분야에서 높이 평가



회장 병주박사

지난 ('97) 10월 28일 제 46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

10명 중 병주 회장이 인문과학분야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문화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화상으로 인문과학을 비롯하여 생명과학 등 12개 분야에서 평생을 연구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중심으로 주어지는 상으로 그동안 384개 관계기관, 단체, 대학,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결과, 기초

과학과 교육부문을 제외한 10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서울시 공보실 제공)

각 부문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과학 이병주(동국대 명예교수) ▲생명과학 김영민(서울대 의대교수) ▲문학 문덕수(한국문예진흥원장) ▲미술 박광진(서울교육대 교수) ▲음악 장일남(중앙대

교수 대우) ▲연예 차범석(예술원 부회장) ▲언론 서희건(조선일보 출판국장 겸 월간조선 부장) ▲출판 박충일(대한 인쇄문화협회장) ▲건설 송중석(연세대 명예교수) ▲체육 백금봉(서울시 축구협회장)

#### 경찰위원장에게 李永範 변호사 취임

경찰위원회는 ('97) 9월 6일 제3대 경찰위원회 위원장에 永範(영범 57세, 참판공 문중)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북 문경출신의 이 위원장은 지난 1962년 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서울 형사지방법원장, 광주 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병호를 내면서**

신문을 제작한다는 것은 한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가들은 氏族(씨족)은 작지만 방방곡곡 어디서나 살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까지 集姓村(집성촌)을 이룬 곳이 아직까지도 경북 의성군 단밀면 서재리를 포함하여 18여 곳이나 있다. 일가들의 소식을 넓혀 不偏不黨(불편부당)하게 제작함으로써 그 만큼 신문은 오늘에는 귀와 눈이 되고, 후에는 집안의 역사로서 그 가치가 빛나게 된다.

대중보 창간 당시 대종회 회장(元九, 1976년 작고)은 발간사에서 牛峯李家(우봉이)의 영생의 길잡이로서 한몫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東寧(동영, 1993년 작고) 명예회장은 격려사에서 종간간의 막혔던 귀가 뚫리고 어두웠던 눈이 떠져, 한사람의 존재가치를 집안의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고, 서로 아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중보는 그동안 편집방향을 자랑스럽게 지녔던 가문의 전통을 함께 갖고, 자손들의 번영된 삶을 위하여 선조들의 행장과 집안의 전통을 이끌어 나가도록 긍지를 심어주게 함으로써 오늘에 있어서는 물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거울이 되고, 사는 보람을 더욱 더 담고 담아 우리들 인생이 갈구하는 영생의 꿈을

키워 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자가 되어줄 것을 다짐해왔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중보는 비록 연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나 결간되는 일 없이 13년의 연륜을 쌓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편집방침은 가문의 자랑이나 불품없다고 감추는 일보다 조상이나 집안의 행적을 찾아내어 내가 가야하는 길을 바르게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전제 아래

그릇된 것은 바르게, 바른 것은 그대로 좇아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뜻 있는 삶을 찾자는 데 두고, 가치 있는 생활의 교훈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오늘의 우봉 이씨 대중보는 비록 다부료이트 판으로 작게 제작되고 있지만 연륜이 흘러 후손들이 다시 뒤져볼 때에는 선조들의 활동이 생생하게 역사의 산 기록으로서 남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일가 모두가 소식을 만드는 공동의식을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형식을 떠난 과감한 예산의 투자와 신문제작에 관심을 갖고 활용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있기를 축구한다.

**대중회 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대중회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회장단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집안 가문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도록 문헌정리를 하여 四禮便覽(사례편람)의 한글판과 牛峯李門追遠錄(우봉이 문추원록) 등의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발간될 세보 증보작업을 위해 3년 전부터 추진해

의 인원이 참석하여 충분한 토의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다. 결과적으로 회장단과 종무위원회와의 二元的(이원적) 조직체제로 서로 밀기식 운영으로 불관과 책임을 서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종무위원들의 의견의 수렴없이 소수의결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소리가 높았다. 즉, 규약에 명기되어 있는 부회장의 경우 약간 명의 개

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임원으로 선임된 일가들은 대종회 회의 때나 사업에 적극성을 갖고 임원으로서 참여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앞으로의 대중회가 할 일**

앞으로의 대중회가 할 일은 세보증간 사업의 실현이다. 세보증간 편찬사업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기준으로 편찬하고 있다. 우봉 이씨 세보는 73년도에 증간 편찬되었기 때문에 30년을 1세로 기준한다면 2002년에는 발간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간 편찬사업에 따른 예산계획과 편찬위원회 등 세부 편찬지침을 수립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특히, 한글세대대를 위한 세보의 편찬 방침 등을 검토하여 오늘에 맞는 세보의 제작을 위하여 인위구성 등을 치밀하게 계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무실 개소로 효과적인 대중회 사무실 운영 유지를 위해서는 상근 근무자를 지정하여 종친들이 항상 불편 없는 방문이 되도록 하루 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지를 모아 하루 속히 정상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항상 종친들이 방문하여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丙泰(대중보 주간)

**대중회 운영에 당면한 몇가지 문제들**

오던 대중회 사무실을 지난 9월 25일 오후 6시 개소함으로써 획기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문중 유대강화는 물론, 선조 유물관리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회 운영면에 있어서는 규약을 외면하고 부회장의 많은 선임과 30여명인 종무위원 구성 등 방만한 조직으로 사전에 추진토록나 안건의 상정없이 변칙적인 방법과 합의체의 회의 원칙이나 기준없는 운영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뜻 있는 회원들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

합의체의 개념은 그 회의

넘은 5인 이내로 보는 것이 관례인데 16명이란 많은 인원을 선임하게 됨으로써 가치 기준이 상실되어 버린 셈이 되었다. 설혹 그만쯤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정관의 약간 명을 개정하거나 종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어야 했다는 소리가 높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대중회는 어느 권력단체나 수익을 위한 기업체나 사회단체가 아닌 것으로 인식할 때 이 기회에 종친들의 올바른 의견을 수렴하여 법이나 규정 등에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에 앞서 상식을 지킬 줄 아는 이상적인 운영으로 이끌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물의에 대한 의견을 재검토하여 행정적인 체제유지는 물론, 합

**1996년 대중회 결산 내용**

**I. 수입지부**

적 요	금 액	비 고
1995년도 이월 잔액	50,000,000	발전기금 20,000,000포함
1995년도 대중회 참조금	5,550,000	
1995년도 대중회 회비 273명	4,095,000	
청송윤사 10개	300,000	
추원록 2권	20,000	
사례편람 26권	520,000	
종무위원 회의잔금	340,000	
예금이자(종계)	7,297,712	
발전기금 입금	10,070,000	
발전기금 이자	1,096,290	
수입계	79,289,002	

**II. 지출지부**

적 요	금 액	비 고
1. '96. 대중회 경비		12,112,781
공로패	200,000	
강연료(이홍두)	200,000	
수상여비 5명	100,000	
죽약비(두영)	500,000	
타올 400枚	800,000	
식 대	4,837,500	
기념품 등 구입	2,243,541	
인쇄물, 우편료	1,570,640	
대중회날 운영 등 잡비	161,100	
'95. 대중회보 편집 및 인쇄비	650,000	
'96. 대중회보 편집 및 인쇄비	850,000	

2. 경조비		1,030,000
병태 종무위원 조화, 부의금	180,000	
회장님 친조	100,000	
안강 회수회 친조	200,000	
기연 종무위원 친조	50,000	
병친 종무위원 친조	100,000	
가평 회수회 친조	100,000	
진영 종무위원 친조	100,000	
병태 종무위원 친조	100,000	
청주 만영씨 조화	100,000	
3. 기타 운영경비		2,868,740
'96. 대중회장 예약	200,000	
세한도 인쇄비	400,000	
담심리 재산세	219,940	
인쇄대(사무용)	30,000	
우 편료	18,800	
'96. 대중회 경비 전도금	2,000,000	
지출계		16,011,521
잔액		63,277,481
잔액내역		
발전기금	31,166,290	
담심리 보증금	29,000,000	
순수증재	3,111,191	
계		63,277,481

**IV. 1995. 대중회 참조금**

명	금 액	명	금 액
대전화수회 철구	100,000	가평 화수회	100,000
옥천영 모당	100,000	가평 무영	50,000
아새아 창무	100,000	청원회장 낙영	200,000
인천 무상	100,000	양평 병원	50,000
종무위원 병식	200,000	부회장 병철	300,000
종무위원 병덕	100,000	종무위원 복영	100,000
부사공파 혜영	50,000	종무위원 승영	100,000
지평공파 덕용	200,000	유사 병호	100,000
지평공파 만용	100,000	종무위원 본영	100,000
종무위원 병국	100,000	병식	100,000
안강 성관	100,000	범서	100,000
감사 건영	200,000	종무위원 청영	200,000
종무위원 병룡	100,000	감사 만영	1,000,000
종무위원 병조	100,000	대중회장 병주	500,000
화용	100,000	종무위원 병천	가훈 5점
병덕	200,000	종무위원 무택	전지수첩 8점
세영	100,000	장재유사 무석	장신구 120점
수영(명예회장)	500,000		
		계	5,550,000

# 중국 吉林省에서 꽃피우는 牛峯李家

光寧씨의 고국방문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 기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건강로에서 살고 있는 李光寧(이광녕 안이비후과 의사)종친이 지난 1996년 10월 부산 동아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개최된 의료기술 연수회에 초청되어 고국을 방문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1월 할아버지(東九 참관공문중) 고향인 경북 의성군을 방문하여 수소문 끝에 일가 뿌리를 찾았다. 조부 동구 선

조는 1940년대 살길을 찾아 북간도로 이주하면서 고국을 떠난 日帝虐政(일제학정)의 희생된 대표적인 조선인이었다. 그러나 동구 선조는 온갖 시련을 참아가며 일가를 이루어 丙海(丙翼 4남을 됴), 丙一, 丙華, 丙昊, 丙彌 등 5남 1녀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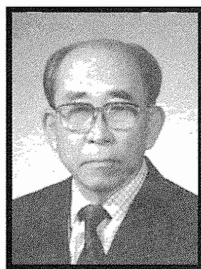
광녕씨는 병호씨의 3남으로 2남인 昌寧(창녕)씨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현재 길림성 연길시 延邊眼耳鼻喉科醫院(연변 안이비후과 의원)을 개업하고 있다. 특히 고국방문시 현재 서울 상도동 256-229번지에서 살고 있는 고모님(外舅)을 상봉할 수 있었다. 한편 대중회에서는 광녕씨가 고국방문시 무학 도유사와 병호 유사가 영접하고, 문중요감 등 책자를 기증했다.



고국을 떠나 일가를 이룬 東九翁

광녕씨는 앞으로 연길시 종친화수회를 열고 일가들에 대한 파악은 물론, 일가간에 상부상조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무숙히 아버님도 고국을 방문해 형제를 상봉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무학 도유사 제공)

## 전 대중회장 隨寧(수녕) 고문 81세로 타계



故 隨寧 회장

지난 ('97) 2월 4일 대중회장 고문을 지낸 수녕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43-43번지 자택에서 향년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1915년생으로 경성법전(현 서울법대)을 나와 제1은행 법률고문과 법률신문사 사장을 지낸 법조계 중진으로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대중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슬하에는 愼宰順 여사 사이에 昌茂(전 제일은행 종로지점장), 光茂(신한은행 구로지점장), 承茂, 種茂(오산기독병원 이사장) 등 4남이 있다.

## '96 대중회장 개식사

을씨년스런 상달에 우리 대중회 총회를 위해 경향각지의 종친께서 참석하시어 이렇듯 성황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의 대중회 총회는 실로 굳건한 자리가 잡혔음을 자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총회 때마다 떳떳한 건의와 보람찬 결의를 앞세웠지만, 실은 팔목할 성과가 탐탁치 못함을 회장으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대를 이을 생산적이고 활성화할 유능한 세대교체가 질실한 우리 대중회의 슬직한 실정입니다.

우리 임원진은 대중회 사무실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성금을 모았으나,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했고, 또 연래의 서업인 「우봉이씨세보」의 재판 역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임업 오늘에 이르러, 새삼 자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루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업적이나마 보고자, 종무위원회에서 숙의한 끝에, 재판 이후 품절이 된 「우봉이문추원록」을 증보해서 제3판을 내서 종친의 수요에 응하고자 오늘 배포를 보았으나, 도암선조께서 직접 듣고 보고 생각하신바의 이목심 「삼판기(三官記)」는, 국문 번역본에 도암께서 손수 제침까지 써서 전하셨지만, 워낙 흘림글씨인 궁체인데다, 연호를 간지로, 이름도 지나 호로 쓰였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아, 우선 정자로 바꾸어 옮겨 쓰고, 또 나름대로 주석을 붙이느라 시간이 걸려 미처 발간을 못했습니다. 본시 이 「삼판기」는 17세기인 조선 후기 숙종과 영조시대의 어수선한 수회상을 날랄히 밝히고, 특히 숙종비로 당신의 이모이신

인현왕후를 둘러싼 기구망측한 사연과 아울러 장희빈의 갖가지 사단은 물론, 노론과 소론의 분당과 우리 노론과 남인과의 분쟁을 객관적으로 가리신 책임입니다. 앞으로 출판을 서둘러서 널리 시중 서점에도 내놓을 작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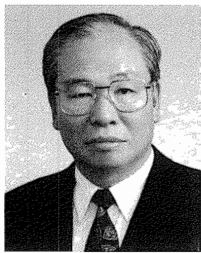
그런데 총복 옥천 이원에는 적은 종친들의 모연으로 영모당을 세워 문경공 시조와 의열공의 위패를 모셔 시향을 올리고, 한편 농재공파에서는 「문중보감」을 내었고, 또한 만회당의 부실 창원황씨 자손은 만회재를 건립하려는 추진회를 발기해, 그 사업을 위한 소책자 「요람」도 간행했습니다.

그러나 요는 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의 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전용의 사무실이 없다 보니, 종친간의 연락이 만만치 않고, 더구나 조선후기의 유학을 주도하시며, 용인 한천서원에서 강론을 펼치셨고, 1746년 장례 때는 시마백부행(諱麻百夫行)이 아니라 복을 입는 수백명이 애도하며, 상어를 따른 우리 우봉이문의 호젓한 도암선조이신데, 그 사액서원도 재건치 못하는 우리임을 자성해야 하겠습니다. 흔히 회장은 왜 도암선조만 드세우냐지만, 높고 깊은 학문과 업적으로 미루어 달리 자랑할 분이란게서서 도리가 없습니다.

끝으로 종친 여러분 대내의 안녕히 기원하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건강과 남다른 분발을 촉구하면서 애오라지 개식사에 거듭합니다.

1996년 11월 10일 여의도 대중회 총회장에서.  
대중회장 이병주(문학박사 동국대 명예교수)

## 丙天 종무위원, 서예부문 대상 수상



서예가 병천氏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골 집 싸리문은 낮에도 달한 채 / 구름이 오락가락하여 쉬어 가는 구나 / 짐승의 발자취로 풀이 이리저리 쓰러져 거칠어져 간다 / 마당에 가득히 떨어진 오동나무 꽃을 사람들이 쓸지 않는다 / 아아, 인연이 닿으면 사향노루가 지나가 더욱 향기를 더 해주겠지.

그런데 대상을 받은 병천씨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를 나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12년간 근무했으며, 제2회 및 제6회 전국무등미술대전 특선(1986. 12.27) 등 10여 차례 각종대전에서 특선 3회, 입선되어 국민예술초대작가, 서울서예공모대전 초대 작가로 활동중이며, 현재 국민예술협회 이사로 있다.

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지난 ('97)11월 13일 사단법인 국민예술협회(회장:차종식)가 주최한 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중회 종무위원이며, 서예가인 병천씨가 서예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이 미술대전은 총 2천887점이 응모되었는데 이중 323점이 입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병천 일가가 받은 대상작품은 조선조 영조 때 실학자인 도암 선조의 시 山扉(산비)를 서예로 써서 출판한 것이다.(사진화보 5면 참조)

## 1996년 일지

- 10월 31일 在寧(인천) 제2회 대한민국 고시공모전 서예부문 입선(3품)
- 11월 4일 丙天(종무위원 서예가) 제2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서예협회 서울 서예 공모전)에서 특선(山扉 도암선생시)
- 11월 10일 대중회 총회 개최(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 중앙회관) 개최선언, 시조문경공 묘소 명배, 시낭송 「우봉이언어 영원하리」(시인 茂原 자작 낭송 홍익고등학교 교사), 시조 문경공 율시(고려 백은거사 이규보시, 낭송 선영 KBS 성우), 대중

회장 인사(병주 박사), 회계 감사보고(만영 감사), 업무 현황보고(무학 도유사), 年高行壽(연고향촌) 기념품 증정 병학(1911년 8월 21일 생 서울시 금천구 거주), 학구(1922년 9월 20일생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거주), 임원선거 임시의장(만영 대진) 회장 도유사 유사 유임, 부회장 준구, 철구, 천구, 병철, 병덕, 승녕, 건녕, 만녕, 창녕, 태녕, 승녕, 덕녕, 청녕, 병무, 무탁, 영병(16명), 강연 燕行日錄(연행일록 의렬공 문중 범세씨 소장) 花樹吟(화수음)題下(제하)의

七言詩(칠언시)에 대하여 강사 병주 박사, 특별출연 가수 茂松社 부부(부인 노사연), 斗寧社(무형문화재 제19호 기능이수자) 국악 한마당(찬조 출연자 소리 김진희, 현순덕), 연모당 안내(세심재공 문중 승무회장), 유공자표창자 수여 병천(종무위원 가훈출품 특선 공로), 범서(종무위원 대전화수회 발원 유공), 만녕(부회장 청주화수회발원 유공), 홍문산 어머니/머느리 효자 열녀 표창 이숙영(충남 진의) 이강자(안강), 기타토의 사항, 경품추천, 폐회.



무형문화재 제19호斗峯(두령)중친이 현순덕(왼쪽)씨와 김진희씨와 함께 국악한마당 소리로 흥을 돋우고 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노사연씨가 노래를 부르자 부군인 이무송씨는 멋쩍은 듯이 자리를 떠났다. ('96 대총회 총회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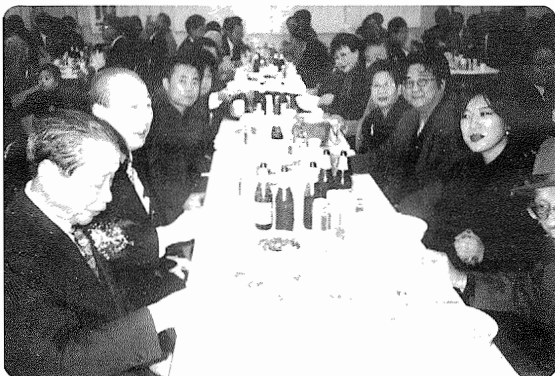
# 牛峯人이여

黃海道 金川은 우리가 태어난 땅  
 鴨綠山맥과 馬息嶺山맥 사이  
 禮成江 물소리에 마음 씻고 德을 쌓아  
 鶴峯山 높이 올라 깊은 뜻 塔을 쌓아  
 萬代에 푸르리라 다짐하신 文景公  
 아, 800여년전 牛峯의 門 여시니  
 그 子孫들,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  
 못 백성 指標되어 나라를 떠받드니  
 그 自存 그 자랑 어찌 우리 것 만이라

바람 속에 구름 따라 그 얼은 살아 있고  
 이 땅 흙을 파면 조상의 뼈 잡히거늘  
 한시라도 잊겠는가 잊어버리겠는가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 한 나무, 한 가지, 한 열매라  
 너는 나요, 나는 너일지니  
 우리 서로의 따뜻한 손을 잡아 보자, 열싸 안아 보자



1996년 11월 10일 대총회 총회전경  
부회장으로 선임된 16명의 중친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96) 대총회 총회에서 참석한 무송·노사연 부부가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백리공 종중(회장 준구) 일가들이 시제에 참석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97. 10. 3)(무석유사 제공)



# 永遠하리

茂原

學界에서 政界에서 社會 各 分野에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빛이 있는 곳에 꽃이 되고  
 꽃이 있는 곳에 열매 되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우뚝우뚝 솟아야 할지니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고  
 멀리 바라보아 희망의 꿈 엮어 내는  
 넓은 바다의 큰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불사르는  
 牛峯人이여  
 오늘 조상님께 큰절 올리며  
 마음 가다듬고 가슴 속 깊이 외쳐 보자  
 상부상조하여 날로 날로 번창하리  
 永遠한 牛峯人이여

李茂原 : (29세 · 시인) 의월공문중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현)



1997년 5월 15일 판문점에 어군과 같이 방문한 범주 회장(좌측부터), 정념 · 병호씨



1893년(고종30년) 부모를 모신 효성이 고을에 귀감이 되어 효자정 문과 함께 통정대부 이조참의 벼슬을 받은 光夏(광하)선조의 정문.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에 있다. (무상유사 제공)

掃橫山 應艸扉  
 緣欲畫 過荒掩  
 麝滿宿 雲傍  
 添桐獸 香華迹  
 不 縱

丙天씨의 제 2 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丙天先生  
 牛峯李氏  
 丙天



「과학도를 지향하는 우봉인」의 제복으로 '97 대중회 총회에서 강연하는 포항공대 교수 이동녕 박사(오른쪽)와 병주회장 무학 도유사



KBS 성우 이선녕 증권이 시 낭송으로 총회 분위기를 돋우었다.

# 문중 인물 종성군과 귀락당을 찾아서

## 동국전란사 속의 鍾城君 이야기

최근 東國戰亂史(동국전란사, 姜敦錫 편저)에서 그동안 몰랐던 문중의 鍾城君(종성군 雲露) 선대에 관한 내력찾을 수 있었다. 이 책은 1989년 11월 20일 발간된 책으로 한국고전 영인대보이다.

우리 문중에는 대체로 파종을 보면 義烈公(의열공 2세 子晟), 鍾城君(종성군 7세 雲露), 員外郎公(원의랑공 8세 英年), 監察公(감찰공 9세 圻), 大司諫公(대사간공), 司直公(사직공 9세), 持平公(지평공 9세), 副使公(부사공 10세 根專), 參判公(참판공 10세 根繼)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동안 종성군 선대에 대한 내력이나 에피소트같은 것조차 문중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동국전란사에서 종성군에 대한 공훈담을 찾아 낸 것이다.

종성군께서는 조선 세조 13년(1467년) 함경도 회령 부사를 지내던 李施愛(이시애)가 同生 李施合(이시합)과 함께 지방세력을 배경으로 함흥 등지의 고을을 점령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체포되어 처형 당한 일이 있었다.

이시애란을 일으켜 강순(康純), 許字(허자) 등 관군에 쫓겨 3개월만에 진압되었는데, 이때 供贖(권궐)일을 맡아보고 있던 司饗院(사용원, 궁중 식품관리부서) 別坐(별좌)벼슬에 있던 許惟禮(허유례)가 작전에 나가 평

정하겠더라 함경도에 갈 것을 자청하자 임금은 그 충성심에 감탄하여 허락하였다. 허유례는 지체하지 않고 함경도 경성 鬼門關(귀문관)으로 가서 그 지방의 연회를 베풀게 되었다. 이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李雲露(이운로), 李珠(이주), 黃生(황생) 등은 현지 민을 만찬 관원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알리고, 大義(대의)를 협력을 당부하자, 이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받아 연회 도중 장막 안에 있던 이시애와 그 일당을 덥쳐 체포하였다.

이시애는 함경도 길주 사람으로 북도의 수령을 남도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부당하다 하여 난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이 공훈을 높이 평가하여 진압작전에 참가한 이들에게 嘉善大夫(가선대부) 품계를 내렸으며, 精忠出氣布義敵愾(정충출기포의적개) 공신록에 2등공신으로 기록하니 우방인 운로 선조는 종성군으로 봉 받았다. 종성군은 세종 6년(甲辰) 3월 9일생으로 문종 1년(1451년) 무과출신이며, 세조 13년(1467년) 이시애 난 평정의 공훈으로 43세 때에 巡邊使(순변사)에 이르렀다. 성종 3년(1472년)에 49세를 일기로 타계하여 경기도 파주 수궁동에 모셨다.

후에 漢城判伊(한성판이)에 증직되었으며, 莊敬의 시호를 받았다.

## 歸樂堂공의 장원급제와 향릉꿈에 얽힌 사연

귀락당공은 조선 숙종 때 우의정을 지낸 일휴정(逸休亭)공의 아드님으로 학문이 뛰어났으며, 감찰공 종손으로 임양된 분이다. 공은 23세 때 진사가 되고, 38세(숙종 22년 1696년)에 장원급제하였다. 이때 장원급제시험에 얽힌 일화가 널리 알려질 정도로 귀락당공은 당대의 수재로서 이름이 높다.

과거시험이 끝난 후 試官(시관)을 담당하던 대체학 趙錫鼎(조석정) 李世載(이세재)와 함께 試券(시권:시험지)을 하나하나 채점하다가 누구의 글인지 몰라도 두 곳의 문장표현이 명문이어서 혹 다른 시관이 의의를 제기 할까 염려하여 그 시권을 별

도로 접어 무릎 밑에 감추었다. 이때 金鑣圭(김진규) 등 몇 사람의 시관이 이상히 여겨서 무엇일 감추느냐고 했다. 조석정은 하는 수 없이 글 내용을 공개하자 모두가 과연 따로 뽑아 놓을 만하다고 감탄하였다. 대독이 끝나자 봉한 곳을 뜯고 응시자의 성명을 살펴보니 귀락당공의 것임을 확인하자 "사람을 지나치게 의심해서는 안되겠다. 실로 재주있는 인사를 어찌 알을 수가 있겠는가."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그후 예비합격자 발표에 귀락당공이 두 번째로 발표되자 공은 初榜(초방)의 발표를 의아해 하면서 "낙방이 되었다면 모르되 급제된 다

면 반드시 장원일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신을 갈게 된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쌓아둔 노력도 있지만, 과거시험 전달 밤에 나타난 황룡과 매의 꿈 때문이었다. 즉, 꿈에 황룡이 대문 밖 버드나무에 있는 것을 자신이 갖고 있던 매(鷹)가 날아가 황룡의 머리를 쫓아 황룡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 피가 튀어 공의 옷에까지 붉게 물든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후 과연 귀락당공이 장원급제로 正榜(정방)에 발표된 것은 물론이었다. 이 이야기는 大東奇聞(대동기문) 책에 있는 내용이다.

**동정** ▲丙疇(회장 동국대학 명예교수) '97년 10월 28일, 제46회 서울시 문화상수상(인문과학분야) ▲丙天(중무위원 서예가) '97년 11월 13일, 사단법인 국민예술협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서예부문 대상 수상(에서 도암사 山廡) ▲丙泰(대중보 주간 국방군사연구소 자문위원) 8월 14일 건군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국군의 뿌리, 창군철전용사들』 집필 50동우회 발간, 8월 31일 『한국사에서 찾는 나라지킴기』(삼우사) 저서 발간

▲永範(부회장 변호사) '97년 8월 6일 제3

9대손) 道文化財 人 文穆祠(문목사, 翔 선조) 담장·진입도로 보수공사 및 自強公(자강공·承健) 묘소 조경 사업 실시 ▲8월 27일 대중회 사무실 개소에 따른 준비 회의, 사무실 개설 현황 보고, 용인시 소재임야에 관한 건 ▲'97년 10월 13일 청진동 청진장 2층, 총회시 표창장 수여 계획, 총회장소 안내, 결산보고, 총회 식순보고, 기타 토의사항 ▲'98년 10월 23일 18:00 대중회 사무소, 정기총회 계획안 심의, 청장년회 재

중무 변천,

**결혼** ▲丙天(중무위원 서예가)3남 康寧군 김용래씨 차녀 素英양과 '96년 12월 29일 향군회관에서 결혼식 거행 ▲甲寧(부회장)4남 茂雲군 고성이씨 영배양과 9월 11일 강남 목화예식장에서 결혼식 거행 ▲杓寧(회원) 10월 18일 오후 4시, 3년 경화양은 박혜용씨 장남 윤식군과 인친 주안동에 위치한 잔치부페에서 결혼식 거행,

**부음** ▲丙朝(중무위원 중앙대학 교수) '96년 12월 17일 모친상 삼성의료원 영안실 발인 12월 26일 오전 6시 ▲丙德(부

## 게시판

회장 대한가스기기(주) 사장]丙敦 '97년 10월 22일 모친상 발인 삼성 의료원 영안실 발인 23일 7시 장지 강원도 횡성군 목계리 선산 ▲丙璉(부회장) 8월 28일 교통사고로 별세 향년 81세 장지 충북 금왕읍 향계리 선산 슬하에 문녕, 세녕, 준녕 등 3남 ▲雲水(寧 청백리공 문중 감사)9월9일 대구대학병원에서 81세 일기로 타계, 경북 의성군 안개면 위양리 1선산에 안장 ▲明久(전 L.A 한인 노인회회장) 별세

## 청장년회 새롭게 발족

회장에 昌茂씨를 선출



창무 회장

년회의 발전없는 대중회의 활동이 있을 수 없다는 다짐을 하고, 이에 따른 규약도 개정하고 임원개편도 단행하였다. 이날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창무(아세아제지 부사장), 수석 부회장 병남(제일경제 신문사 부장), 부회장 무녕(KBS 차장), 이사 무석(농심 상무이사), 창무(가야금(주) 사장), 범탁(삼광유리, 상무), 병길(신라화원 대표), 유사병수, 무상(총무간사), 제무(재무간사)

지난 10월 21일 오후 대중회사무실에서 청년회가 다시 발족되었다. 이날 30여 명의 회원이 모인 자리에서 "청장

중무위원회 熙九(문목공

# 앞서가는 청백리문중

## 해마다 문중 자녀 장학금 지급

지난 8월 25일 청백리 문중(파죽중 회장 俊九)에서는 문중자녀 중 성적이 뛰어난 대학생 10명을 선발하여 '98학년도 2학기 장학금(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1992년부터 해마다 지급되는 이 장학금 제도는 청백리공 증중 재산(빌딩 임대료 및 각종 수익사업)에서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 '98학년도 2학기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영미 양 외 9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자녀는 다음과 같다.

영미(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연정(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진호(미국 어스틴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과정), 인재(우석대학교 예체능대학 연극영화과), 범주(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창열(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임산공학과), 지영(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화학공학과), 미연(순천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향숙(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서양어문학부 심리학과), 범준(동국대학교 이과대학 화

학부) [무상 유사 제공]

**참봉공 문경중증 종회 결성**  
중증회장에 세녕(가은읍 성저2리) 일가를 선임

지난 8월 2일 문경시 가은읍 성유리 穎樂亭(영락정)에서 우봉 이씨 참봉공(14세, 孝參·字 魯叔) 문중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의 채택과 중회의 임원을 선임하였다. 이날 150명의 일가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세녕(가은읍 성저2리) 부회장 창녕(점촌동 177-7) 중무(가은읍 작천1리) 감사 옥재(모정동 82-39) 명녕(가은읍 작천1리) 총무 동녕(가은읍 왕릉1리) 이사 철녕(가은읍 작천1리) 정무(가은읍 성저1리) 홀무(가은읍 왕릉1리) 상무(모전동 118-4 남도맨션 4-401호) 강원(모전동 현대APT103-1102호)

참봉공 문중은 참판공파의 掌令公(장령공 成宗朝 乙未文科) 증손으로 문경의 가은읍은 1930년에 실시한 국세조사에서도 우봉 이씨의 4대 집성촌의 한 고장으로 알려

져 왔던 곳이다.(무학 도유사 제공)

**김포 강화문중 재산처분 금지가처분 조치**  
丙潘 증중회장과 茂相일가가 앞장서서 처리

예로부터 중친회 명의가 아닌 개인(대표)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증중자산의 취약한 점을 노려 증중 그 자손들이 처분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김포 강화 문중에서도 사유가 아닌 증중자산을 경향 각지 부동산 업자들에게 내



○ 지난 6월 28일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에서 자현대부 호학 선조의 묘비제막이 있었다. (준녕씨 제공)

### 병옥씨 자당 광산김씨 104세로 건강 유지



대중회에서 만수무강 빌고 기념품도 전달

문중 일가 丙玉(병옥, 76세, 광명시 광명동 374-99)씨의 모친 광산김씨가 白壽(백수)가 넘은 104세 나이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대중회에서 축하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했다.

김씨 할머니는 1894년 1월 23일생으로 호적등본에 의하면 본적이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토정리 1통8호(현 마포구용강동)로 호주는 李休用(전호주 李潤培)이며, 장남 重九(중구)의 처로 개국 503년(명치27년)정월 23일생이므로 슬하에는 8남이 있었으며, 현재 고손주(宣燁,範爽)까지 보았다.

농아 매수 회망자들이 현지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증중에서 지난 6월 28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 15일 검토 때 모인 전중

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재산처분 금지가처분 조치를 강구하게 되어 재산을 보존하게 되었다.

특히, 범준 증중회장은 소요경비가 3백여 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을 인척 이영화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친 무상씨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아 1백37만 4천여 원의 경비로 우선 1차로 부동산 가치분 결정판정을 받게 되었다.

한편 1차 회의 때 자발적으로 즉석에서 소요경비에 보태라고 성금을 솔선하여 낸 일가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김포 강화 중친회에서는 집안별로 소요경비에 대하여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1997년 대중회 결산 내용

### I. 수입지부

적 요	금 액	비 고
1996년도 이월종재	32,111,191	전년도 30,000,000
1996년도 이월 발전기금	31,166,290	20,000,000
당기 발전기금 입금	22,720,000	10,070,000
발전기금 이차	7,009,786	1,096,290
총계 환조금	6,600,000	5,550,000
대중회 회비 243명 @15,000	3,645,000	4,095,000
세한도 15부 @20,000	300,000	
추원록 115부 @10,000	1,150,000	
청송읍시 1개	30,000	
전년도대중회 준비 전도금 입금	1,000,000	
추원록 발간 환조 병호유사	1,500,000	
종무원인 회시 전액 입금	500,000	
우봉이문요록 찬조 7명	1,400,000	
총계예금이자	3,088,675	7,297,712
수입계	112,220,942	

### II. 지출지부

적 요	금 액	비 고
1. '96 대중회 경비	7,619,360	전년도 12,112,781
공포패 6개	330,000	
현수막	232,000	
안내장인쇄, 발송비	702,360	
경품 및 기념품	742,500	
현장 경비	234,500	
신문대금 추가	50,000	
명장 두영씨 수고비	500,000	
식당 식대	4,828,000	
2. 경조비	1,100,000	1,030,000

북영씨대 무친 조화	80,000		
병조씨대 조화	80,000		
병친씨대 축의금	100,000		
무석씨대 조화	80,000		
병친씨대 수상화환	100,000		
수영친회장 조화	80,000		
안성화수회 정성방문 환조	100,000		
영암죽전 서원 찬조	300,000		
원형전도유사 조화	80,000		
김영씨대 결혼 축의금	100,000		
3. 기타영의비		3,622,070	2,868,740
추원록 인쇄비	3,270,000		
1년문구, 풍선비	5,300		
종무원인 회의식대	328,000		
(당일 찬조금으로 지출)			
담심리 건물재산세	18,770		
4. 전도금	7,200,000		
우봉 이문 요록 발간			
회장님께 전도금	6,000,000		
대중회준비 도유사 전도금	1,000,000		
대중회 준비 식당예약	200,000		
지출계		19,541,430	
잔액		92,679,512	

자산내역	금 액	비 고
(1) 발전기금 60,896,076		
(2) 종재	31,783,436	
계	92,679,512	
(3) 담심리 498-46 대지 86㎡(26평), 건물 43㎡(13평)		
(4) 용인군 이동면 천지산 57-1. 임야 1정 1토		

### III. 발전기금현황 (1997년 10월 6일 현재)

명	금 액	명	금 액
만영	10,000,000	파주연친 회수회	500,000
병무	10,000,000	병무	300,000
창영	5,000,000	문구	270,000
총범	5,000,000	덕용	350,000
무학	1,000,000	도영	120,000
병호	1,000,000	인무	300,000
기무	1,000,000	영무	300,000
무상(인천)	1,000,000	육천 영모당	300,000
병친	1,000,000	대진 회수회	300,000
진영	1,000,000	창구(대전회수회)	300,000
윤무(아세아)	1,000,000	진형(대전)	50,000
창무(아세아)	1,000,000	화무(대전)	50,000
재영	1,000,000	삼영(대전)	50,000
병칠	1,000,000	안강두류 회수회	500,000
병주(회장)	500,000	수영(광명)	300,000
무탁(부회장)	1,000,000	병준(대전)	1,000,000
순영(부회장)	1,000,000	병덕(형성)	1,000,000
병국(종무원)	300,000	승영(부회장)	1,000,000
대전의일공과계정종중	1,000,000	만영	500,000
만용	1,000,000	예금이자	8,106,076
병용	500,000		
계 60,896,076			

### 유인 안동권씨 효열비를 찾아서

충남 음성군 금왕읍  
행제리의 자랑

중순 충남 음성군 행제리에는 1970년 5월에 세워진 유인 안동권씨 효열비가 있다. 이 효열비의 주인공은 청백리 집안인 茂昌(무창)씨때

모에게는 지극한 공경을, 남편에게는 올바른 예의로 받들었다. 시가는 청렴하여 집안형편이 어려웠으나 정성을 다해 늙으신 시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니 주위에서 효를 다하는 며느리라고 칭찬



안동권씨 효열비 앞에서 (왼쪽)

“어찌 금수와 같이 행하라고 하십니까? 위나라의 夏侯(하후)씨 따님의 열녀나 한나라의 陳縣(진현)의 효부 고사를 못들었는가.”라고 오히려 정숙한 태도로 꾸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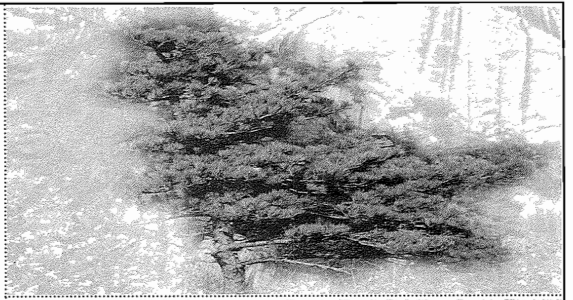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예를 갖추어 삼년상을 지내고 시아버지마저 중풍으로 6년간 대소변을 받아내어도 불만 없이 간호에 정성을 다했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후 시동생과 시누이를 양육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출가를 시켰다. 그후 시동생이 아들(勝範)을 낳으니 권부인은 승범을 양자로 맞아들였다. 권부인의 효열의 행장은 고을마다 번져 음성군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자 마을에서는 건비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월성 정규해씨가 비문을 짓고, 한양 조수형씨가 글을 지어 1970년 5월에 금왕읍 행제리 권부인 묘앞에 효열비를 세웠다. (무상 유사 제공)

으로 시집와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제 몸같이 돌보아 온 안동인 權寧夏(권녕하)씨의 따님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본받도록 하기 위해 建碑推進委員會(건비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효열비를 세운 것이다.

효열비의 주인공인 안동권씨는 고려때 太師(태사 幸)와 조선조의 松菴(송암·貞翼公) 선생의 후손으로 1898년 3월 12일 출생하였다. 권부인은 열여섯 나이에 청백리 문중으로 출가하여 시부

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병이 들게 되자, 일년을 하루 같이 지성을 다해 간병에 정성을 쏟은 것도 외면한 채 유명을 달리하자 권씨는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 뒤따르겠다고 결심하고 단식을 했다.

시부모님은 권씨 행동에 놀라 “네가 그러면 우리와 열살 미만에 어린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어찌란 말이나.”고 타일렀다. 이때 나이 열아홉. 주위에서는 꽃다운 나이에 재가를 권했으나 권부인은



### 峯城(잠성)의 큰 나무

의열공파 萬壽

峯城의 큰 나무가  
구름 밖에 솟았으니  
꽃 피고 얼마 맺어  
나라 안에 빛이 되네

긴 세월 茂盛한 枝葉  
萬世 繁昌 하여라

※ 萬壽(대진시 문화재단)씨는 1997년 대동회 총회에서 時國師(時國師)를 1997년 신간소스로 지은 萬壽를 옮겼다.

### 신간소개



### 한국사에서 찾는 나라 지키기 著 李丙泰

국방하면 특수분야로 생각하기 쉬워 일반사회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다년간 국방사를 연구 편찬해 오던 종친 이병태 대종보 주간이 연전 건군 50주년 특집으로 월간 “국방저널”(국군 홍보관리소)지에 1년 3개월 동안 연재했던 것을 일반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행본으로 펴냈다.

특히, 개국정신을 바탕으로 역대 국방사상과 6.25전쟁이후 오늘의 국방비전까지 5천년의 우리 문화사에 대입시켜 빠른 템포로 이끌어 편찬하였는데 이 책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군인은 물론 일반 독자층에게 국방에 관심 깊게 읽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삼우사:9,000원 신국판·반양장·416면(유명서점 판매중)

## 국역 사례편람

陶庵 李緯 編

값 20,000

오고 있는 살아있는 의례에 관한 책  
이백팔십 여년의 전통 그대로 지켜  
도암선조가 재편찬한 『四禮便覽』은  
朱子家禮를 우리실정에 맞도록

근간 출판

## 陶庵의 三官記

옛한글로 쓴 당시의 사회상을  
현대감각에 맞도록 재구성한 수상록

李丙疇 撰

## 牛峯李門 追遠錄

집안내력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

주문청약서  
FAX (02) 753 6340  
서울 중구 무교동 우봉이씨 대종회  
장재유사 李茂錫